

냉전초기 동아시아 상황을 지역 연구, 과학기술, 저널리즘이라는 지(知)의 분야 속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상호역학을 통해 검토한 역작

안종철*

[서평] 모리구치(쓰치야) 유카·가와시마 신·
고바야시 소메이 엮음(2024), 문만용·김미숙·신의연
번역, 『문화냉전과 知의 전개』, 슬과학, 556쪽

1. 머리말

냉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와 그 책임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화시킨다면 소련과 미국, 그리고 양자의 책임을 공히 강조하는 입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관심이 주가 된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논쟁이 있었고 전통적 반공논리와 이에 대한 수정주의, 그리고 후기 수정주의 등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¹ 단순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냉전의 복잡성에 대부분 학자

* 베니스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동양학부 부교수

1 한국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다루자면, 전통적인 입장에서 소련의 책임을 강조한 입장("전통주의")과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 입장(소위 "수정주의"), 그리고 이 둘을 나를 합쳐서 양측의 책임을 함께 강조한 입장("후기 수정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수많은 관찬자료와 교과서 등에 수록된 입장이고 냉전 종결 후에도 존 개디스(John Lewis Gaddis) 같은 학자들이 견지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등의 미국 외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들이다. "후기

들이 동의할 것이다.²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등, 냉전하의 “열전”에 대한 기원과 책임논쟁과는 별개로, 냉전의 지적 토대에 대한 연구, 특히 냉전과 “근대화론”에 대한 연구 등도 냉전사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³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냉전의 문화적 현상, 즉 “냉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⁴ 냉전을 정치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삶의 한 형태를 결정지은 총체적 문화로 보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사에 중심을 둔 연구가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군사, 경제 등에 대한 접근을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의 정책보다는 사회나 사람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사는 단순

수정주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와 별개로 동서 양측의 교호적인 측면을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다.

- 2 전통적 입장에 가까운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도 “수정주의”연구가 미국이든 남한이든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한 면은 냉전사 연구에 대한 기여라고 평가한다. William Stueck (2002),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Conflict Studies* 22(1) pp. 17-27.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사 정리 중 가장 최근의 것을 든다면 Kyuhyun Jo (2022), “The “Civil War Thesis” and the Myth of Revisionism in the Historiography of the Korean War: A Critical Review of Recent (Post-Cumings) Scholarly Literature”, *Korea Journal* 62 (4), pp. 253-268.
- 3 Nils Gilman (2003),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Balimore, M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한국에서 근대화론을 포함해서 개발계획과 지성사에 대한 사례연구는 Gregg Brazinsky (2007),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4 냉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손더스의 연구 이후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Frances Stoner Saunders (2000),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New York, The New Press (New Edition 2013)/유광태·임채원 옮김(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냉전문화와 별개로 아시아 냉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아시아지역의 냉전연구를 추구하는 글은 Charles K. Armstrong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pp. 71-99 이후 다양한 연구가 출간되었다. 한국에서 냉전문화와 그 지적 계보에 대해서는 정용욱(2004),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pp. 97-133이 매우 중요한 초기연구라고 할 수 있다.

히 동서대립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탈식민주의 역사와 전후 민족주의의 대두 등과도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고려할 때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⁵

사실상 정책이나 외교사의 관점에서 냉전의 규정력은, 국가 혹은 공적 영역과 일반인들의 삶 혹은 문화를 매개하는 냉전의 지식 혹은 지(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지식 생산에 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매우 많은 데 비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⁶ 한국전쟁과 같은 냉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지적 자장의 형성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냉전하의 지적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냉전의 지적 문화를 초국경적·간학제적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향후 냉전연구의 하나의 전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서의 내용: 지역연구, 과학기술, 저널리즘의 연결망

이 책은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로 수차례 회합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연구한 성과를 엮어 낸 것이다. 약 15명의 연구자가 필진으로 참여해서 이미 일본어(교토대학

5 냉전연구의 범위를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미소대립까지 올려보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 Odd Arne Westad (2017),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UK: Penguin Random House, pp. 19-21.

6 한국의 경우에 한국전쟁기 사회과학의 형성에 대한 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로 되어 왔다. 국사편찬위원회(2020), 『6·25전쟁과 냉전 지식체계의 형성』(학술회의 총서)에 실린 여러 논문 참고.

7 정준영(2020), 「한국전쟁과 냉전의 사회과학자들: 한국전쟁의 경험은 어떻게 미국 냉전 사회과학의 일부가 되었는가?」, 『한국학연구』 59, pp. 97-132.

학술출판회, 2021), 영어(University of Indiana, 2022), 그리고 중국어(마이텐출판사, 2022)로 출간되었다. 한국어 책은 문만용, 김미숙, 신의연이 번역에 참여했고 2024년 11월 말에 출간되었는데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이 깊게 관여했다. 기존 원고를 번역한 원고도 있지만, 새로 추가된 원고와 기존 원고를 약간 수정한 것도 있다.⁸

특히 냉전 문화연구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 책이 가진 중요한 의의는, 한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다룬 총 3개의 장과 1개의 키노트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 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냉전연구의 국제 협력사업에서 그만큼 한국의 사례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하면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개의 짧은 키노트 강연이 더해져서 총 1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장의 내용도 세 명의 편집자가 문화냉전의 연구상황을 다루고 있고, 종장도 연구의 전망에 대한 글이기에 전체 18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출판물이다. 이 책이 다루는 지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대만, 한반도, 베트남 등이다. 주제로는 지역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 그리고 각 지역의 언론환경이다. 목차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서장: 모리구치(쓰치야) 유카, 가와시마 신, 고바야시 소메이

제 I 부 지역연구

1장 냉전 중 대만의 중국 연구와 미국: 포드재단에 의한 중앙연구원 근대
사연구소 지원-가와시마 신

8 출판경위에 대해서는 이 책, 대표저자인 모리구치(쓰치야)유카의 감사의 글(한국어판 서문) pp. 4-5, 그리고 같은 저자의 “마치며”의 pp. 543-546 참고.

2장 냉전 중의 협동: 1945-1960년 미국에서의 일본학-미리엄 킹스버그 카
디아

3장 1960년대 미국과 일본의 '근대화' 논쟁: 하코네 회의에서의 가치체계
와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후지오카 마사키

4장 한국에 관한 지(知)의 형성과 맥쿤 부부: 대일전쟁 전후 미국 학술계와
정책 입안 집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고바야시 소메이

키노트 1 구술사와 아카이브를 통한 학지(學知)의 전후사(戰後史)-나카오
가쓰미

제II부 과학기술

5장 중국 원자력 연구의 맹아: 내전과 냉전의 사이에서-사토 유코

6장 미시간기념 피닉스 프로젝트와 대만: 미국 공립대학에서 대외 원자력
기술원조-모리구치(쓰치야) 유카

7장 황혼의 제국의 과학지(科學知): 탈식민지 시대 영국의 원자력 외교-도
모쓰구 신스케

8장 냉전 공간의 재발견: 비무장지대(DMZ) 생태조사의 과학 정치-문만용

9장 개발의 순교자: 1959년부터 1975년까지 대만의 해외 농업 지원과 베트
남 공화국-제임스 린

키노트 2 관점으로서의 기술협력: 제국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히로미 미
즈노

제III부 저널리즘

10장 '미국원조' 아래 대만 고등교육과 '화교 학생'의 교육: 대만 정치대학

신문학과를 중심으로-란스치

11장 냉전기 홍콩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형성과 미국의 영향-장양

12장 냉전기 미국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과 한국 저널리즘의 미국화-차재영

13장 GHQ 점령기 일본인 저널리스트의 미국 초빙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콜롬비아대학·민간정보교육국-고바야시 소메이

키노트 3 전문지(專門知)로서의 대민 활동(Civic Action)-허은

마치며-모리구치(쓰치야) 유카

위의 구성을 통해 보듯이, 이 책은 지역적으로는 미국, 영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다루고 있고, 냉전의 지적 형성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 그리고 저널리즘 등의 중요성이 차례로 다루어져 있다.

세 저자[모리구치(쓰치야) 유카, 가와시마 신, 고바야시 소메이]가 함께한 서장에서는 전체 저서의 방향성을 논하면서, “문화냉전”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냉전문화 연구가 21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특히 “학지”(學知)와 “전문지”(專門知)에 대한 충분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12쪽). 전자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지식의 체계를 일컫고, 후자는 저널리즘 등 전문직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학지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이 전문지라고 할 때, 둘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학지와 전문지를 문화냉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 특히 기존의 연구가 주로 안보나 외교정책, 혹은 경제개발계획 등 이른바 경성권력(hard power)과 관련이 있는데 반해, 문화냉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중요한 연성권력(soft power)의 영역을 다룬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서장에서 문화나 정보의 공급자와 수용자를 단순히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지의 생산구조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특히 남한은 미국의 새로운 학지를 도입하면서도, 구 일본 제국의 유산을 탈식민지화하려는 민족주의적 태도가 주목되며, 대만의 경우는 대만의 토착 내셔널리즘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15쪽). 일본의 경우는 연합군 점령기간(1945-52)에 미국식 학술과 교육제도의 개혁에 더해, 기존의 독일 등에서 유래한 제국의 학지가 혼재된 양식이 나타났다(16쪽).

이러한 동아시아 각지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받는 자”의 행위주체성(agency)이라는 관점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와 지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현지에서 수용자들이 그것에 얼마나 협력하고 변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공급자와 수용자의 관계에서도 복수의 공급자와 수용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학지의 변화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된다(16-17쪽). 그 연장선에서 동아시아의 연구자나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에 의한 지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학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것은 “저항의 씨앗, 자유의 탈출구, 상호이용, 그리고 경계를 초월한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었다(18쪽).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특징을 중심으로 책을 구상한 서장은 세 가지 주목할 지점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패배에 의해서 일본제국의 식민지에서의 지적 유산을 연합국인 미국, 소련, 중국의 지적유산들이 대신했다는 점이다(19쪽). 일본제국의 유산에 더해 새롭게 들어선 미국 학지의 전파는 이 지역의 탈식민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반도와 대만, 베트남 등에서 보듯이 분단국가의 등장이었다. 이는 분단국가들은 “거울처럼 대칭적인 관계”(21쪽)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권위적인 동아시아국가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냉전”이 아닌,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 충돌 등에서 보듯이 “열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아시아 냉전과 열전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각 지역의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 문제와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22-23쪽).

동아시아의 냉전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랐기에, 지적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29쪽), 분단국가의 논리는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진영의 글로벌 냉전과 연결되어 있었고(30쪽), 또한 남한과 대만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식생산에 참여(31쪽) 하면서도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의 지식 생산에 강하게 개입했다는 것(31쪽)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 집단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선교사 자녀들”, 둘째는 전략 연구나 첩보 활동을 통해 성장한 아시아 전문가들, 그리고 셋째는 전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해군과 육군의 어학학교에서 공부한 학자들이다(24-26쪽). 이들 아시아 전문가들과 동아시아 전문가들의 관계를 양방향에서 다루고자 한다는 점이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집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이 책은 아시아 냉전에서의 미국과 동아시아 간 지적 형성의 과정을 양방향에서 다루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인 탈식민화의 과제와 민족주의, 그리고 아시아의 “열전”하에서 생산된 지적 작업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한다. 그 지점이 성공적으로 규명된다면, 아시아 냉전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냉전과의 공통점을 넘어선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냉전 논의의 모색

이 책의 강점은 냉전의 지적 토대를 초국경적 협업과 갈등, 각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agency)을 통해 보여준 것인데 각 부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몇 가지 비평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1부는 지역연구로 대만, 미국, 일본의 근대화론 논쟁, 그리고 한국에 관한 지식의 형성 등을 다루고 있다. 1부 전체는 미국 포드재단의 지원에 기

초한 대만에서의 중국연구, 전후 초기 미국에서의 일본학연구, 1960년대 보편이념으로서 일본 하코네회의에서의 미일학자들의 “근대화론”에 대한 인식과 갈등,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학문적 지적 형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네 학자의 학문적 관심사에 의해서 지역연구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중요한 소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라든가, 동아시아 학자들의 다른 역내 지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이 미국 내로 다시 역류된 연구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마도 이러한 소재적 분산을 하나로 잡고자 키노트1에서 “구술사와 아카이브를 통한 학지의 전후사”라는 강연록을 싣고, 특히 구술사를 통한 아카이브 자료의 보충을 강조한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에 집중한 탓에 제1부에서 중요한 소재나 주제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장의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대한 포드재단의 지원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 대한 학지의 구성상, 미국과 중국 간의 중층적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연구이다(64-65쪽). 즉 대만학계가 미국의 중국 연구와 중국 이해에 일정한 접근(영향력이 그대로 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을 통해서 쌍방향적 학지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⁹

2장의 경우는 1945-60년 미국에서의 일본학이 일본학계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들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 흥미롭다(71쪽). 아쉬운 대목은 미국의 일본학 발전에서의 휴 보튼(Hugh Borton, 1903-1995)의 역할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 전시에는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을 역임하며 전후 일본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고, 전후에는 콜럼비아대학교 초대 일본학 책임자로 있었다. 3장은 일본의 학자들과 미

9 좀 사소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만 방문은 1961년 5월이 아니라 60년 6월이었다(58쪽).

국의 일본학 전공자들 사이의 “근대화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1960년 하코네회의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2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4장의 한국에 대한 지적 작업의 형성에 대한 문제는 냉전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 조지 맥쿤을 사례로 학술장과 정책입안가들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출판물에 거의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40년대 시작된 한국학이 1960년대에 가서야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고, 맥쿤의 전통이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또한 한국학이 주변 일본학이나 중국학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2부에서는 원자력연구에서의 중국의 원자력발전의 맹아, 미국 공립대학에서 형성된 원자력 기술과 대만에 대한 기술 원조, 탈식민지 시대 영국 원자력 외교의 유산,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과학정치, 대만의 해외농업과 베트남공화국과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원자력 자체에 대한 미국, 영국과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기술원조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연구와 대만의 해외농업원조 등도 냉전하의 역내 기술이전이라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임에는 틀림없지만, 냉전과 과학기술 전반을 조망한 연구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글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임스 린의 대만의 베트남 농업원조라는 글은 냉전하의 원조에서 미국과 동아시아라는 관점을 넘어서, 동아시아 역내의 협력관계와 성취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냉전하에서 서방과 동구권 간의 협력사례가 없었는지, 향후에 왜 유럽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었는지 등에 대한

10 선행연구로는 안중철(2009),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조지 M. 맥쿤을 중심으로」,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세계속의 한국사』, 태학사를 참고. 이 논문은 이 책의 161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고바야시 소메이는 선행연구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1차 사료를 충분히 활용했다.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부 마지막에 실려있는 키노트2 “관점으로서의 기술협력: 제국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는 기술원조 외교를 제국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의 접점에서 재조명한다. “사람·물자·자금의 네트워크 재구축”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미국-동아시아 간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남미를 포함하는 수평적 연결,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복잡한(제국으로부터의 연결 변동도 포함한) 중층성을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시각”(399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는 향후 냉전연구에서의 새로운 관점과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부 저널리즘은 대만 정치대학 신문학과와 사레,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냉전기 홍콩의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리고 12, 13장 각각에서 냉전기 미국의 한국 저널리즘 사업, 미국 군정기 일본인 저널리스트 초빙 프로그램 등을 다루었다. 허은의 키노트3 강연록에서 미국의 “대민활동(Civic Action)”이라는 전문가가 “동남아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되어 한국에 적용되고, 나아가 한국군에게 계승되는 과정”(538쪽)이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즉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방적 학지 이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축적된 지적 자산이 같은 역내 지역으로 이전되고 수용되는 지점을 강조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의 편집진이 의도한 아시아의 독특한 냉전의 양상을 냉전문화와 지적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본 의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열전에 따른 지의 생산의 응급성이라든가 강렬함 등등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탈식민지화라든가 초국경적 흐름에 대한 언급 등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는 이 책에서 더 규명되었다면 좋았을 지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의 냉전이 현지의 탈식민지화라든가 새로운 지의 구축이라

는 점에서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탈식민지화는 결국 일본이 구축한 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남한과 대만에서 해방 후 지식인들이 구 제국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지의 구조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경성제국대학과 대북제국대학 등 제국대학 체제, 그리고 선교사나 민족주의자들이 설립한 사립대학교 간의 상호경쟁과 재편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아시아의 열전이 유럽의 냉전과 다른 대목이라고 했을 때,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요구된 지적생산(그것이 한미간 상호협력이든, 미국-베트남 간 협동으로 진행된 것이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글이 있었다면 편집진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과학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어떤 형태였는지 등이 규명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점령지에 대한 미국의 사회과학에서의 “심리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을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미국 측과 협업을 통한 사회과학 작업의 양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지의 전이에서 초국경적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 간의 상호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에서의 흐름이 미국의 지성계나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역시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평화봉사단 파견과 거기서 훈련받고 성장한 인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위를 받고 학계에 정착한 사례들은 결국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류 한국학 연구자들의 성장은 평화봉사단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의 고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 1945-2024),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1943-), 인디애나 대학교의 마이클 로빈슨(Michael E. Robinson, 1947-)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제임스 팔레(1934-

2006)의 경우는 1년간 미군에 근무하다가 한국학을 하게 된 경우이다. 이 외에도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¹¹ 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향후 커리어를 결정한 셈이다. 또한 수많은 동아시아 이민자 학자들의 경우도 좀 더 언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유학을 가서 미국에 남아 학문활동을 한 학자들은 미국의 아시아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여전히 미국의 아시아재단이나 포드재단 등의 협력에 의해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지의 생산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요 연구소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세대 국학연구원,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등은 연구기금 등을 받아서 1960년대 다양한 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¹² 특히 동아시아 내에서 민족주의적 열망이 미국이 구축한 냉전의 지적 구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앞으로도 더욱 많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본서의 내용과 비평을 다루었다. 이 책의 목차와 구성을 보고,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고, 그 의의를 간략히 다루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지적 작업과 계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꽤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아서는 냉전의 지역성을 초국경적으로 설정하고, 문화

11 최근에 발간된 평화봉사단과 한국학의 성장에 대한 다음 저서가 주목된다. Seung-Kyung Kim and Michael Robinson (2020), *Peace Corps Volunteers and the Making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대한 사례연구는 안종철(2017),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수용과 한국사 인식: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pp. 43-73.

냉전이라는 주제하에 지역학, 과학기술, 마스크뮤니케이션 등으로 나누어 살핀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전의 행위자에서 미국과 동아시아간의 상호 교호성과 소통가능성 등을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제1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식과 제도적 토대를 다루었다는 점은 냉전사 연구에서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제2부의 과학기술 부분에서 중국·대만 등에 대한 원자력 기술 연구, 영국의 사례, 그리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조사와 과학정치,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 등은 냉전사 연구에서 보기 드문 사례일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농업기술의 전이와 이식 등은 매우 초국경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적이며, 이를 단순한 일방적 통로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굴절 등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제3부의 저널리즘은 대만, 홍콩, 한국, 그리고 일본 저널리스트들과 미국의 각종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냉전”의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

서장을 포함하면 총 3부에 실린 총 17개의 글(세 개는 짧은 강연 노트인 키노트)의 상당수는 미국의 각 지역에 대한 정책을 넘어서, 역내의 지적자산이나 기술축적이 역내 다른 지역으로 전이하고 변용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향후 냉전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냉전에 대한 지적 계보의 형성과 제도적 유산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냉전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냉전은 지적 작업, 과학기술, 그리고 인식론 전반에 걸친 총체적 체제였다는 것을 옹변하고 있는데, 향후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냉전문화와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냉전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거나 혹은 고유한 방식으로 관여했던 제3세계, 곧 오늘날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탈냉전 이후의 존재방식과 미래 전망, 그리고 냉전문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2020), 『6·25전쟁과 냉전 지식체계의 형성』, 학술회의 총서.
- 마루카와 데쓰시(2010),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일본어 원문, 2005).
- 신옥희·권현익 엮음(2019),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안종철(2017),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인식: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pp. 43-73.
- 안종철(2009),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조지 M. 맥쿤을 중심으로」,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세계속의 한국사』, 태학사.
- 정용욱(2004),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pp. 97-133.
- 정준영(2020), 「한국전쟁과 냉전의 사회과학자들: 한국전쟁의 경험은 어떻게 미국 냉전 사회과학의 일부가 되었는가?」, 『한국학연구』 59, pp. 97-132.
- Armstrong, Charles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pp. 71-99.
- Brazinsky, Gregg (2007),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Chang, Kornel (2025), *A Fractured Liberation: Korea Under US Occupation*,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man, Nils (2003),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oery in Cold War America*, Balimore, M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jimu, Masuda (2015),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 Kyuhyun (2022), “The “Civil War Thesis” and the Myth of Revisionism in the Historiography of the Korean War: A Critical Review of Recent (Post-Cummings) Scholarly Literature,” *Korea Journal* 62(4), pp. 253-268.
- Lee, Sangjoon (2020), *Cinema and the Cultural Cold War: US Diplomacy and the Origins of the Asian Cinema Network*,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지은 옮김 (2023), 『영화와 문화냉전-미국 외교정책과 아시아 영화네트워크의 기원』, 소명출판]
- Sounders, Frances Stoner (2000),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New York: The New Press (New Edition 2013) [유광태·임채원 옮김 (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 Stueck, William (2002),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Conflict Studies* 22(1), pp. 17-27.

Westad, Odd Arne (2017),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UK: Penguin Random House
[유강은 번역·옥창준 해제(2025), 『냉전: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서해문
집].